

# 세계도시

2006. 4. 17. 제141호

## 목 차

### 도시경영·경제

1. 연방정부의 불공평한 세입배분 시정 요구하는 홍보 전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2. 공익통보제도 시행 후 첫 통보 조사결과 보고 (동경都 치요다區)
3. 시정공정연구원 특허 개발을 통한 기술산업화에 주력 (상해)

### 디지털 도시

4. 인공위성을 이용한 건설용지 변화 상황 감독 (북경)

### 복지·문화

5. 여학생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GirlsREACH) 시행 (뉴욕)
6. 구립학교에서 토요일 특별수업 실시 (동경都 미나토區)
7. 청년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장려금 지급 (치바縣 노다市)
8. 새로운 고령자보건복지계획 수립 (동경)

### 도시환경

9. 도심 공원과 생태 정보 제공 사이트 'London Wildweb' 운영 (런던)
10. 보전지역 서포트 사인 제1호 설치 (동경)
11.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계획 발표 (영국)
12.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민 물 절약 홍보 (런던)
13. 교토의정서 발효 1년, 온실가스 배출억제 고전 (일본)
14. 'PSE 마크' 없는 가전제품 판매금지로 재활용업계 대혼란 (일본)

### 도시교통

15.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주차 단속차량 '스마트 카' 운영 (런던)
16. 보행자와 주거환경을 위한 거리 개선 프로그램 실시 (샌프란시스코市)
17. 계단 없이 이용 가능한 런던 전철역 만들기 시행 (런던)
18. '자동차 함께타기'를 장려하기 위한 전용도로 설치 (영국 요크셔州)

### 도시계획·건설·주택

19. 토지신탁제도 도입해 주택가격 안정 추진 (캘리포니아州 엘바인市)
20. 임대료 상승으로 임대대란 조짐 (호주)

### 방재·안전

21. 아동 보호를 위한 방법시스템을 갖춘 보행자 전용 지하도 개통 (시즈오카縣 야이즈市)

### 1. 연방정부의 불공평한 세입배분 시정 요구하는 홍보전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는 연방세인 GST(Goods & Services Tax) 세입을 연방정부가 불공평하게 배분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홍보를 주요 일간지 와 인터넷 등 언론매체 광고를 통해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GST는 물품의 구매와 서비스를 받을 때 총액의 10%를 부과하는 연방세금이다.

州정부는 GSP의 34%가 뉴사우스웨일즈州에서 발생하나 연방정부가 세금을 퀸즐랜드州 등 다른 州에 배분함으로써 GST 보조금의 1인당 수혜금액은 타 州에 비해 오히려 적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www.nsw.gov.au)

### 2. 공익통보제도 시행 후 첫 통보 조사결과 보고 (동경都 치요다區)

공익통보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 운영을 위해 2003년 8월 치요다區가 일본 최초로 조례(치요다區 직원 등 공익통보 조례)를 제정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번 통보는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행정감찰원에 통보된 사항이 실제 있었다고 인정한 케이스다. 행정감찰원 조사결과보고의 공시를 통해 사고나 사건, 그 외 부정행위로 연결되는 위법·부당행위를 최대한 초기 단계에 공시하는 것은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자정(自淨)효과도 있고 신속한 시정도 가능하게 한다.

행정감찰원은 2005년 7월 17일에 ‘치요다 파크 사이드 플라자’의 수영장 관리업무 위탁업자가 적격한 수영장 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나 區는 해당업자에게 개선 권고를 했고 적절한 시기에 區직원이 권고 내용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보고서를 계기로 區는 ‘치요다 파크 사이드 플라자’ 이외의 區立수영장의 감시업무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일부 동일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수영장 감시업무 이외의 시설관리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www.city.chiyoda.lg.jp/news/topics/20050909/0909.htm)

### 3. 시정공정연구원 특허 개발을 통한 기술산업화에 주력 (상해)

2003년에 창립된 상해市 시정공정설계연구원의 특허신청건수가 현재까지 약 100개에 이른다. 신청된 특허 중 발명특허가 반 이상으로, 주로 상해 시정개발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다. 현재 시정공정설계연구원은 ‘과기발명 창의산업 개발기금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매년 200~300만 위안(약 2억 4000만 원~3억 6000만 원)을 개발기금으로 제공한다. 가까운 시일 안에 객관적인 특허권 수익뿐 아니라 자주 지식 산업권 획득을 통해 시정개발의 경쟁력을 높일 전망이다.

(www.shsz.org.cn/viewnews.asp?num=news-20063239573)

### 4. 인공위성을 이용한 건설용지 변화 상황 감독 (북경)

북경市는 2006년 3월부터 인공위성을 이용한 리모트 센싱 기법을 활용해 건설용지의 변화 상황을 감독한다. 이번 감독 대상 토지는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승인된 토지의 변화 상황이다. 활동의 주요 내용은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종합계획, 토지이용 연도별계획 등 승인 당시의 토지이용 목적과 실제 진행 상황 간의 비교다. 북경市는 3개의 인공위성을 이용해 불법적 토지이용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北京日報, 2006. 3. 28)

### 5. 여학생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GirlsREACH) 시행 (뉴욕)

뉴욕市는 2006년 3월 여성역사의 달(Women's History Month)을 맞아 여학생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GirlsREACH)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공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미래의 커리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성공한 전문직 여성들과 연결시켜 주는 프로그램이다. 뉴욕市는 다양한 워크숍과 대학준비과정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진로교육과 멘토링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市 여성위원회와 청소년 및 지역개발국이 공동 개발했다.

여학생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은 학업능력을 계발하고 자신감을 고취시켜 미래의 일과 삶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성관련 이슈의 일에 대한 준비성 강화, 대학생활 안내, 리더십 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워크숍을 마련했다. 2006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6주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14~18세 연령의 공립고교 재학 여학생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뉴욕市 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에는 뉴욕은행, 무디스재단, JP모건체이스, 하퍼콜린스 출판사 등 뉴욕市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 좋은 시민을 육성하는 민관 파트너십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카플란 출판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맞춘 SAT 예비코스, 뉴욕시립대학은 고교졸업 이후 대학 입학과 재정 카운셀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www.nyc.gov/html/cwi/html/news/news.shtml](http://www.nyc.gov/html/cwi/html/news/news.shtml))

#### >>> 전문가 검토의견

뉴욕市의 걸스 리치 프로그램은 세대간 소통(성인여성과 청소년), 민·관 협력, 부서간 협조의 좋은 정책 사례다. 우리의 경우 차세대 여성 리더십, 여학생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은 여고생보다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민간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졌다.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서울市에서 대학과 기업 등과 연계해 여고생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해 볼 수 있다. 상대적

으로 취약한 실업계 여고생들에게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다. 市교육청과 협의해 주말단위 또는 방학캠프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커리어여성과 여고생을 직접 연결하는 멘토링 워크숍은 구체성과 현장성이 가미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건축사의 경우 대학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안내하고, 설계사무소를 직접 탐방하거나 건축물 답사 등과 같이 직업의 구체적 현실세계를 실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사구시의 좋은 시민교육으로 여학생들의 호응이 높을 것이다.

/황인자 도시사회부 초빙선임연구위원(hwangij@sdi.re.kr)

## 6. 구립학교에서 토요일 특별수업 실시 (동경都 미나토區)

동경都 미나토區 교육위원회는 대규모 입시학원과 제휴해 미나토區 내 4개 구립중학교에서 '토요일 특별 강좌'를 실시한다. 주5일 수업으로 인한 학습력 저하를 막는 것이 목적인 이 「토요일 특별강좌」는 구립학교라는 이유로 생기는 학부모의 불신을 감소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區 조사에 따르면 구립초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국립중학교나 사립중학교 진학생은 많지만 구립중학교 진학생은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주5일 수업 시행 후 토요일에 공부하는 구립중



학원 강사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

학생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 구립중학교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싶지만 휴일에 학교 선생님에게 수업을 부탁할 수는 없다”는 딜레마에 빠진 區 교육위원회가 생각한 방법은 대규모 입시학원과의 제휴였다. 2005년 6월에 시작해 현재까지 29주 간의 평균 출석률은 약 70%로 학부모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예전의 토요일은 아이가 낮잠을 자거나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해도 하루 종일 게임만 했다. 이제는 학원비도 들지 않고 가게에도 도움이 된다”는 학부모의 반응이다. 2006년 4월 개학을 즈음해 미나토區 내 구립중학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토요일 수업은 전국 각지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www.yomiuri.co.jp/kyoiku/news/20060327ur01.htm](http://www.yomiuri.co.jp/kyoiku/news/20060327ur01.htm))

## 7. 청년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장려금 지급 (치바縣 노다市)

일본 치바縣 노다市는 2006년 4월부터 청년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 트라이얼 고용 사업'을 실시한다. 청년의 고용기회 창출이 목적인 이 사업은 縣 내에서는 처음이다. 市 무료 직업소개소에 등록된 약 740개 사업자가 34세 이하의 구직자를 정규직·비정규직에 관계없이 3개월간 주 30시간 이상 고용하면, 피고용자 1명당 5만 엔(약 41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시청에 개설된 무료 직업소개소 외에 5월부터 지역훈련센터를 만들고, 치바縣과 공동으로 청년 취직상담이나 면접훈련을 실시하는 'Job 카페'도 개설할 예정이다.

([job.yomiuri.co.jp/news/jo\\_ne\\_06033112.cfm](http://job.yomiuri.co.jp/news/jo_ne_06033112.cfm))

## 8. 새로운 고령자보건복지계획 수립 (동경)

일본 동경都는 2006년 4월부터 전면 개정된 수발보험제도에 대응해 향후 3년간(2006년~2008년) 추진할 정책목표와 구체적인 시책이 포함된 '동경도 고령자 보건복지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2008년에 수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인원을 42만 명으로 예상하고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수발 서비스의 예상량과 이용 정원 등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의 주안점은 세 가지다. 첫째, 종합적인 수발보호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도민의 건강수명을 신장한다. 둘째, 치매에 걸려도 안심하고 계속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든다. 셋째, 고령자의 지역생활을 지탱하기 위한 서비스 기반을 충실화한다. 구체적인 시책으로 수발보호예방 서포트 센터(가칭) 창설, 치매 고령자를 지역에서 지원하는 동경회의(가칭) 창설, 소규모 다기능형 서비스 등이 있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3/20g3u6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3/20g3u600.htm))

### 한줄 뉴스

- 영국정부, 2009년부터 현재 週당 15만원인 어린이 정부보조금(Child Benefit)을 17만 6000원으로 인상키로 결정

#### <런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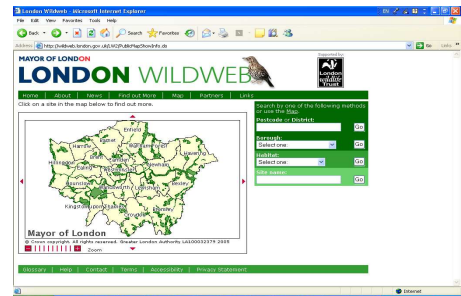
- 최근 발표된 市 경제정책평가보고서에서 런던의 취업률이 전국 최저인 69.4%로 드러나
- 캄덴 구청, 20년간 끌어오던 유럽 최대규모의 킹스 크로스(King's Cross) 도심재개발 사업계획 마침내 허가
- 영국 최초의 '비즈니스 장려지역'인 홀본(Holborn) 지역의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통계획 발표

#### <시드니>

- 시드니市, 하루 1만 5000개비씩 무단투기되는 담배꽂초 문제 해결 위해 4만 2000원 벌금 부과키로
- 시드니市, 시내버스에서 일어나는 한달 평균 130건의 폭행, 강도, 기물파괴 등 폭력행위 대책 부심
  - 관할 뉴사우스웨일즈州 교통부에서 '대중교통수단 내 폭력배 처벌을 위한 법률안' 제출 예정

## 9. 도심 공원과 생태 정보 제공 사이트 'London Wildweb' 운영 (런던)

런던시는 시민단체인 '런던 야생동물보호협회'와 공동으로 런던 시내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약 140개 공원과 보호구역에 대한 인터넷 정보사이트 'London Wildweb'을 운영한다. 이 프로젝트는 런던시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차 보고서에도 나오듯 자연과 함께 숨쉬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 환경정책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런던 야생동물보호협회(London Wildlife Trust)가 축적해 온 노하우와 시 지원이 결합해 시민이 찾고 같이 지켜나가는 환경정책 집행의 모범사례다. 인터넷 환경의 장점을 살려 런던 지도에 공원, 동물 보호 및 산책, 관찰학습 관련 정보를 연결시켜 지도를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자료를 얻을 수 있게 한 '실시간 검색 지도창'과 해당 지역의 우편번호 또는 해당 자치區, 보호구역 명칭을 선택하거나 입력할 수 있는 '주소 검색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www.london.gov.uk/mayor/environment/biodiversity/wildweb.jsp](http://www.london.gov.uk/mayor/environment/biodiversity/wildweb.jsp))

([wildweb.london.gov.uk/LW2/Welcome.do](http://wildweb.london.gov.uk/LW2/Welcome.do))

### >>> 전문가 검토의견

서울시 자연생태과는 '서울시 자연자원 DB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2006년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구내용 및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자연환경자료의 실시간 검색지도창 등을 연구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웹서비스 제공은, 공원 및 생태경관보호지역 등 다양한 보호지역에 관한 생태정보에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도시생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도시자연보호운동에 적극 동참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송인주 도시환경부 부연구위원(injusong@sdi.re.kr)

## 10. 보전지역 서포트 사인 제1호 설치 (동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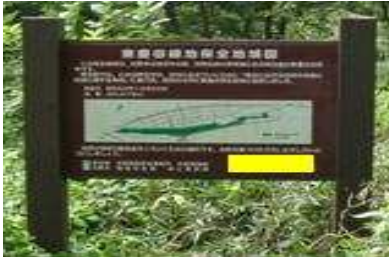
동경都는 도민들로 하여금 보전지역에 더욱 더 친밀감을 갖게 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2005년 12월부터 지역주민이나 민간기업의 이름이 들어간 안내판(서포트 사인)의 기증자를 모집해 왔다. 이번에 서포트 사인 제1호를 조야마(城山) 역사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게 되었다.

동경都는 구릉지의 습지나 잡목림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지역을 지정하고 있는 데, 특히 시가지에 근접한 보전지역은 자연을 즐기거나 환경학습을 위해 많은 사람이 찾는다. 이에 따라 안내판이나 해설판을 설치해 보전지역의 목적이나 존재 의의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증자를 모집하여 안내판의 설치를 부탁하기로 한 것이다.

기증자는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판 자체를 제작, 설치하여 기증한다. 안내판의 표시 내용은 동경도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설치시 都 직원이 입회한다.

안내판의 종류는 3가지다. A타입은 구역 지도나 보전지역의 개요를, B타입은 자연환경이나 역사적 자산에 대한 해설을, C타입은 규제내용을 담게 된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3/20g3n5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3/20g3n500.htm))



<A타입>



<B타입>



<C타입>

>>> 전문가 검토의견

최근 생태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생태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 생태 안내판은 각양각색의 디자인과 재질로 제작되는데 일반시민을 비롯해 어린이에게도 보전지역의 목적이나 특징을 이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지역주민이나 민간기업의 이름이 들어간 안내판의 기증은 서울시에서 특별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생태학습효과를 높이고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방안이다. 서울시 특성에 맞게 자연생태과에서 안내판의 종류와 내용구성 방법 등 기본지침을 마련해 보전지역뿐 아니라 공원이나 특정 야생동식물 서식지 등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송인주 도시환경부 부연구위원(injusong@sdi.re.kr)

11.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계획 발표 (영국)

영국정부는 주택, 학교, 상업건물, 공공건물, 임대주택 등 모든 형태의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5000만 파운드(약 8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도심 건물에 직접 설치가능한 소형 풍력 발전과 태양열 발전과 같은 소형 발전 기술(microgeneration technologies)을 개발하고 설치하는 데 사용된다. 이 계획의 골자는 2만 5000개 빌딩에 소형 발전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계획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기업부문은 앞으로 지어질 25만호의 주택건설에 단열처리를 필히 한다는 내용으로 정부와 공식적으로 협정을 맺었다. 정부 관계자는, 계획이 실행되면 연간 3만 5000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2000만 파운드(약 340억 원)의 에너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planning, 2006. 3. 22)

>>> 전문가 검토의견

에너지 확보능력이 국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에너지가 국가경제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지구온난화문제가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손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책이 공급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기후변화방지 관련 각종 국제협약과 불안정한 국제유가 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서울시 생활경제과와 환경과, 서울시 및 각 區廳의 건축과 등 관련부서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참고할 가치가 높은 시책으로 평가된다.

/조항문 도시환경부 연구위원(chohm@sdi.re.kr)

12.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對시민 물 절약 홍보 (런던)

런던과 남동부 잉글랜드 지역에 16개월간 지속된 가뭄으로 저수지 수위가 내려가 최악의 경우 물 수요가 많은 여름에 대규모 수도공급 중단사태가 예상된다. 3월 21일 런던市는 템즈계곡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템즈워터社와 공동으로 對시민 물 절약 홍보를 시작했다. 비와 우산으로 대표되는 런던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현재 런던의 평균 강우량은 델러스, 이스탄불보다 적다.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런던의 인구유입으로 영국 평균 하루 한 명당 150리터보다 많은 156리터를 소비하고 있어 물 절약의 필요성이 커졌다. 일반시민과 학생으로 대상을 나눠 물 절약 생활수칙(샤워는 짧게, 세차시 바구니에 물을 담아 사용하기 등)을 홍보하는 한편 우수 환경학교 상(London Schools Environmental Award)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7645](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7645))

### 13. 교토의정서 발효 1년, 온실가스 배출억제 고전 (일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환경성의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목표 달성에 고전을 겪고 있다. 2005년에 유행어가 된 「쿠루비즈(Cool Business의 약자)」는 냉방 설정 온도를 올리고 넥타이를 벗고 일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스타일을 말한다. 「쿠루비즈」를 통해 2005년 여름 전력 소비량이 줄어 100만 세대 1개월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46만 톤을 삭감했다고 환경성이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겨울에 시행된 「워무비즈(Warm Business의 약자)」는 고전의 기미를 보인다. 냉방보다 난방기간이 길어 쿠루비즈의 4배의 효과를 전망했다. 그러나 대한파로 2005년 12월과 2006년 1월 전력소비는 최고 기록을 보였고 시민 협조의식도 저조해진 상태다.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일본은 2008~2012년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 삭감해야 한다. 2004년 배출량은 13억 2900만 톤으로 1990년 대비 7.4% 증가했다. 환경성은 2005년 4월부터 30억 엔(약 250억 원)을 들여 '팀 마이너스(Team Minus) 6%' 운동을 전개해 홈페이지에 절전, 절수, 과잉포장 추방 등 6개 행동강령을 소개했다. 2006년 2월 15일까지 홈페이지 등록자는 목표 인원인 100만 명에 턱없이 부족한 약 18만 명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job.yomiuri.co.jp/news/jo\\_ne\\_06021707.cfm](http://job.yomiuri.co.jp/news/jo_ne_06021707.cfm))

([job.yomiuri.co.jp/news/special/ne\\_sp\\_05071901.cfm](http://job.yomiuri.co.jp/news/special/ne_sp_05071901.cfm))

([job.yomiuri.co.jp/news/jo\\_ne\\_05112901.cfm](http://job.yomiuri.co.jp/news/jo_ne_05112901.cfm))

### 14. 'PSE 마크' 없는 가전제품 판매금지로 재활용업계 대혼란 (일본)



2006년 4월부터 전기용품안전법에 의해 안전성을 보증하는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 마크'가 붙지 않은 가전제품의 판매 및 거래가 금지된다. 주관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은 제조회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했지만 재활용센터 등 재활용업계에는 특별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PSE 마크는 2001년 4월부터 신품이나 중고품을 포함한 모든 전기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인은 '최고 1억 엔(약 8억 4000만 원)의 벌금', 개인은 100만 엔(약 84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상이 되는 전기제품은 가전제품 외에 진열장이나 업소용 주방기기 등 450개 품목이다. 표시의무 부여 이전에 생산된 제품 중 에어컨, 드라이어, 전동칫솔 등이 7년, 냉장고나 세탁기, 텔레비전, AV기기 등 주요 가전제품은 5년, 배선용 스위치 등은 10년의 판매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2005년 3월말까지 미신고 제품은 전면 판매가 금지된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시민과 많은 재활용업자들은 3월말까지 팔리지 않은 제품을 폐기처분하게 돼 업계 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경제산업성 제품안전과 담당자는 "상공단체를 통해 본 시행에 관한 여러 대응책을 강구했지만, 재활용업계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아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www.yomiuri.co.jp/e-japan/saitama/news001.htm)

## 한줄 뉴스

- 오사카府, 여성기금 활용해 450만원 한도로 남녀공동참여활동 사업비의 1/2이내 지원

### <동경>

- 악질적 상행위로 피해입은 고령자를 위해 소비생활종합센터에 전용전화 개설
- 국회의사당과 明治神宮 聖徳記念繪畫館 주변지역 대상으로 '조망 보전을 위한 경관유도지침' 수립, 4월부터 적용
- 스기나미區 빗물저류조 설치비용 지원
  - 소형(500리터 이하)에 32만원 상한으로 설치비 반액 지원, 대형은 270만원 상한으로 1000리터당 36만원을 곱한 금액 지원

## 도시 교통

## 15.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주차 단속차량 스마트 카 운용 (런던)

런던교통공사는 아날로그 방식의 주차단속 통신망과 재래식 단속차량을 한 단계 발전시킨 디지털 단속차량 '스마트 카(smart car)'를 2006년 3월말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스마트 카는 첨단 GPS, 자동번호판 인식기능이 내장된 디지털 카메라, DVD 촬영장비, 무선 고속 인터넷 및 송수신 보안 기능 등을 구비하고 있다. 도심교통체계인 런던 도로교통통신망(Transport for London Road Network)과 연결되어 필요한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다.



첨단 장비로 무장한 스마트 카의 내부

스마트 카 도입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버스전용차선 및 승차장 불법주차 등을 확실히 적발, 예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관계자는 스마트 카 사업이 포함된 런던 도로교통통신망 시스템의 운영으로 2003년 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버스전용차선의 버스 운전속도가 15% 정도 빨라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밝혔다. 스마트 카 도입으로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노리는 런던 도로교통통신망 사업의 목표가 더욱 빨리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런던 도로교통통신망은 런던 도로의 5%에 해당되는 런던 도심지역(시 전체 대비 교통량 35%)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통망 사업으로서 '적색 노선의 버스전용차선' 지역이다. 런던 버스는 1968년 이후 승객 수송량 1위의 최대 대중교통수단으로 하루 평균 630만 명이 이용한다.

([www.tfl.gov.uk/tfl/press-centre/press-releases/press-releases-content.asp?prID=741](http://www.tfl.gov.uk/tfl/press-centre/press-releases/press-releases-content.asp?prID=741))

### >>> 전문가 검토의견

현재 서울의 도로교통상태는 평균적으로 포화수준이기 때문에 가로변 불법주정차 또는 접촉사고 등의 작은 소통장애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전환된다. 특히 간선도로변, 교차로주변, 버스정류장에서의 불법주정차는 교통체증 유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IT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 카 도입은 가로소통 개선, 불법주정차 감소,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주정차 단속수단이 될 수 있다.

/김순관 도시교통부 연구위원(sdigwan@sdi.re.kr)

## 16. 보행자와 주거 환경을 위한 거리 개선 프로그램 실시 (샌프란시스코市)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市 공공사업부는 1만 2458구획의 거리 개선 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거리 재포장이나 보수 작업을 시행한다. 샌프란시스코市는 매년 각 거리의 도로 조건과 교통량을 고려해 일정한 점수를 산출해 사업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市는 민간기업과 함께 거리 개선사업을 벌이며, 교통 소통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거리 개선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사업부는 거리 지하 매설물 관리부서와 함께 전체 거리 개선계획을 세워 개선기간 단축, 비용 절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거리 개선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은 판매세 수입과 연방정부 교부금으로 마련된다.

([www.sfgov.org/site/sfdpw\\_page.asp?id=32446](http://www.sfgov.org/site/sfdpw_page.asp?id=32446))

## 17. 계단 없이 이용 가능한 런던 전철역 만들기 시행 (런던)

런던교통공사(Transport for London)는 1995년 제정된 「장애 차별금지법」 과 최근 수립된 영국 정부의 도시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철도사업(The Railways for All strategy)'의 일환으로 런던시 전철 역사를 시민이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2005년 330만 파운드(약 56억 원)를 투자해 런던 남부 Norbiton역에 계단 없이 이용가능한 출입구와 통로를 설치했다. 7개 역은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설계된 매표소 창구를 설치했고 청각 장애인을 위한 청취 보조장치인 자기루프(induction loop)를 고객 안내소와 함께 런던 시내 160개 전철역에 설치했다.

2010년까지 런던 지하철역 4곳 중 1곳은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게 향후 5년간 100억 파운드(약 17조 원)가 투자될 예정이며, 런던교통공사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2012년 런던 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2013년에는 1/3의 런던지하철역사에서 계단으로 인한 고객 이용불편이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 등의 대중교통(특히 지하철) 이용시 불편사항 중 계단으로 인한 접근성 저하가 이번 사업으로 해소될 전망이지만, 플랫폼과 전철간 거리문제와 같이 객차를 새 모델로 설계해 도입해야하는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7645](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7645))

## 18. '자동차 함께타기' 를 장려하기 위한 전용도로 설치 (영국 요크셔주)

영국 요크셔주는 최근 자동차 함께타기를 장려하는 전용도로(Car Share Lane)를 영국 최초로 브라드포드(Bradford)와 리즈(Leeds)간 도로에 설치하기로 했다. 250만 파운드(약 42억 원)의 예산으로 만들어질 이 전용도로는 2007년에 개통된다. 이 전용도로는 승용차 안에 2명 이상 탑승시 사용할 수 있고 1명만 운전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출·퇴근 시간에 84% 이상의 승용차에 1명만이 타고 있다는 고속도로청 보고서를 기초로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다. 전용도로 설치는 도로공간의 효율성과 함께타기를 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이면서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고속도로청은 전했다.

(planning, 2006. 3. 20)

### 한줄 뉴스

- 상해시, 지상 101층 높이 492m의 세계 최고층건물인 환구금융센터빌딩 11월 16일 준공 예정
  - 현재 세계 최고층건물인 477m 높이의 캐나다 CN 타워보다 15m 더 높아

### <북경>

- 2006년 전자상거래 규모 1000억 위안(13조원) 돌파 예상
- 3월 25일, 중국 최초의 부녀아동 박물관 기공식 가져
- 2008년 북경 올림픽 이전에 6000개 교통안내표지판을 모두 전자표시판으로 교체키로

## 19. 토지신탁제도 도입해 주택가격 안정 추진 (캘리포니아주 얼바인市)

미국 캘리포니아주 얼바인市는 토지신탁제도를 통해 총 주택의 10%를 저가주택으로 유지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한다. 기존 저가주택 프로그램에서는 주택가격이 일정 기간(20~30년) 후에 시장가격으로 변하는데, 얼바인市 저가 주택의 대부분이 시장가격으로 바뀌게 될 시점에 와 있어 토지신탁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제도는 비영리기업인 얼바인 지역공동체 토지신탁(Irvine Community Land Trust)을 설립해 개발부담금, 정부지원금, 다른 기금에서 2억 7000만 달러(약 2600억 원)를 조성해 2025년까지 9700개의 단독주택, 콘도, 아파트 등을 소유할 것을 목표로 한다. 대부분의 저가주택은 전(前) 엘토로(El Toro) 해군기지에 계획된 대공원에 건설되며, 임대 아파트 경영권은 개발업자가, 토지는 市가 소유한다. 주민들은 토지신탁을 통해 주택 매매가 차액의 일부를 갖는 방식으로 주택을 저가로 유지할 수 있다.

(Los Angeles Times, 2006. 4. 1)

## 20. 임대료 상승으로 임대대란 조짐 (호주)

부동산경기가 침체하고 투자목적의 임대주택 매입자가 격감하면서 따라 호주 전역 대도시에서 임대료가 치솟으며 임대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부동산 불경기로 대다수 투자 매입자가 임대시장을 떠난 여파로 나타난 것이다. 현재 주택통계자료에 의하면 연간 13만 8000호의 주택이 공급되는데, 이는 연간 16만 1000호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수급 불균형으로 만성적인 공급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07년에는 임대주택 부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호주부동산협회 통계에 따르면 주요도시의 공실률은 평균 2% 수준으로 사상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간 임대료 상승률도 퍼스(Perth)市の 경우 21%를 기록하는 등 세입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

임대난으로 인한 세입자 임대료 부담증가와 관련해 무주택자 보호기관인 내셔널 쉘터(National Shelter)의 메리 퍼킨스 부회장은 “저가 임대주택 투자수요가 점차 감소해 서민 세입자들이 값도 싸고 쓸만한 임대주택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부담으로 일부 저소득 세입자 중에는 임대주택을 떠나 캐러밴 파크(caravan park)로 이동하거나 친구 집 동거 등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는 사례도 많다.

(www.hojudonga.com/index.php?p\_menu=m\_read&seq=1508)

21. 아동 보호를 위한 방범시스템을 갖춘 보행자 전용 지하도 개통 (시즈오카縣 아이즈市)

최근 일본에서 아동 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방범 순찰차나 수상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범죄에서 아동을 지키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아이즈市는 아동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학로·통행로에 방범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 등의 방범시스템을 갖춘 보행자용 지하도를 개통했다. 지하도의 전체 길이는 약 230m이며, 토카이도(東海道)線を 횡단하는 보도로 건설됐다. 사업비는 7억 엔(약 60억 원)으로 2002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06년 3월 21일 개통했다. 2400만 엔(약 2억 원)을 들여 방범카메라 15대, 적외선 센서 26대, 비상버튼을 49곳에 설치했다. 비상버튼을 누르면 사이렌이 울리고 적색등이 점등되면서 경비회사에 통보된다. 경비회사는 카메라 영상으로 범죄 위협에 처한 아동을 파악하고 수상한 사람에게 경고방송을 한 뒤 경비원, 경찰, 시청에 통보한다. 지하도에 사람이 있는 경우 적외선 센서로 위치를 파악해 지하도 출입구 전광판에 「통행자 있음」 표시와 함께 모니터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즈市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방범 시스템을 갖춘 지하도의 개통을 계기로 시민의 방범의식도 높아져 범죄 방지로 연결됐으면 한다.”고 전한다.



지하도입구의 전광판과 모니터

([www.yomiuri.co.jp/e-japan/shizuoka/news001.htm](http://www.yomiuri.co.jp/e-japan/shizuoka/news001.htm))

>>> 전문가 검토의견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아동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에서도 공공장소나 시설에 감시용 카메라 설치가 부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동보호를 위한 시스템으로 이러한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실제적인 사고에 대한 대처뿐 아니라 시민 방범의식 고양을 통한 범죄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통학로에서 어린이 안전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많은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다. 통학로 정비 사업에 응용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로뿐 아니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하도에도 방범카메라 등의 장비를 설치한다면 증가하는 보행자 대상 범죄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장비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다면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는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와 경찰청 등이 연계하여 서울시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적용가능할 것이다.

/김선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sunjakm@sdi.re.kr)  
이신혜 도시교통부 연구위원(newsun@sdi.re.kr)

